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빌립보서 —

윤철원*

1. 빌립보서 1:10

GN*T⁵*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ὰ διαφέροντα**, ἵνα ᾖτε εἰλικρινεῖς
καὶ ἀπρόσκοποι εἰς ἡμέραν Χριστοῦ,

『개역개정』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새번역』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
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공동개정』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새한글』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순수하며
걸릴 것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 차이점 관찰

- (1)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지극히 선한 것’이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공동개정』은 ‘가장 옳은 것’으로 번역합니다. 반면 『새한글』은 ‘최선의 것’으로 번역하여, 원문의 어순은 물론, 의미까지 가지런히 담아냈습니다.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cwyoon@stu.ac.kr.

(2)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대체로 ‘윤리적으로 좋은 것이나 옳은 것’에 집중한 번역이라면, 『새한글』은 비윤리적이거나 삶의 미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날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방법으로서 ‘최선의 것’을 강조하여 신앙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KJV(‘things that are excellent’), ESV(‘what is excellent’), NRS(‘what really matters’) 등 대부분의 영어 역본은 뉘앙스 상으로는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NLT 역시 NRS와 같이 ‘정말 중요한 것(what really matters)’으로 번역합니다.

(2) 영어 역본 대부분은 ‘탁월한 것(things that are excellent)’으로 번역함으로써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새한글』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정상적으로 고려하여 번역했는데, 당시 사회의 배경지식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말 번역에서 가장 낫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미덕’만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 철학의 유일한 분파입니다. 그들은 ‘선’이라는 명칭을 ‘미덕’에 국한하여 사용했습니다. 즉 ‘미덕’이 유일한 ‘선’이고, ‘악’은 유일한 악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미덕’이나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중립적인 것으로서 ‘아디아포라($\alpha\deltaι\alpha\phi\rho\alpha$)’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스토아학파의 부당성을 논증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이 가치의 중립성을 구별하는 최선의 근거임을 강조합니다.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이 말($\delta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ὰ διαφέροντα)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분명합니다. ‘디아페론타($\deltaια\phi\rho\o\tau\alpha$)’는 ‘중요한 것’이나 ‘차이 나는 것’을 의미하며, ‘도키마제인($\deltaοκιμάζειν$)’은 ‘시험하다’나 ‘분별하다’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라고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중요한 것 중에서도 ‘최선의 것’을 분별해 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2) 바울은 자신의 투옥 및 죽음(빌 1:12-26)과 육체적 궁핍(빌 4:10-13)을

받아들일 수는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지향성과 비교할 때 자기 형편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능력을 확신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의 중립성을 입증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가치중립적인 ‘아디아포라(ἀδιάφορα)’의 재배치를 요구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즉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찾아내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종말론적 믿음의 핵심 주제라고 가르칩니다.

2. 빌립보서 1:27

GN <i>T⁵</i>	Mόνον ἀξίως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τοῦ Χριστοῦ πολιτεύεσθε, ...
『개역개정』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u>합당하게 생활하라</u> ...
『새번역』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u>합당하게 생활</u> <u>하십시오</u>
『공동개정』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u>사람다운 생활을</u> <u>하십시오</u>
『새한글』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u>시민으로 살아가</u> <u>십시오</u>

2.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오직/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로, 그리고 『공동개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반면 『새한글』은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여, 원문의 어순과 의미를 모두 담은 번역을 시도하였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모두 ‘생활하라’고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로 번역했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1) KJV, ESV, NRS 등 대부분의 영어 역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단, NLT는 여기에 ‘하늘의 시민들’을 첨가함으로써 원문의 뉘앙스를 기술적으로 살려 내려고 의도했습니다.

(2) 영어 역본 대부분은 『개역개정』과 일치하는 번역을 보입니다. NIV와

NAS(1995)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루터성경>(이하 LB)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Wandelt nur würdig des Evangeliums Christi)’도 같습니다. 다만, <취리히성경>(이하 ZB)은 ‘도시의 시민으로 살라(als Bürger eurer Stadt leben)’, BasisBibel(이하 BB)도 ‘공동체에서 생활하라(Führt euer Leben in der Gemeinde)’고 번역함으로써 원문의 뉘앙스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바울은 빌립보서의 서론에서 핵심 주제를 이미 밝혔지만(빌 1:3-11), 이 서신의 주요 관심사는 27절 이하에서 더 명확하게 소개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상황에서도 복음 증언을 위해 최선을 다했듯이, 빌립보교회의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튼실함을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2) 바울의 시대는 그레코-로마 세계였으며, 헬레니즘과 로마제국의 정치 상황이 어우러진 지중해 사회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쓰는 용어도 그 시대의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식민지 도시로 발전한 빌립보의 도시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에 자치권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빌립보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과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바울이 보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레코-로마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험하는 삶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3) 3:20(‘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바울은 당시 로마제국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깊이 이해한 사람으로서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매우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새한글』은 이러한 전후 사정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번역했는데, 당시 사회의 배경과 지식을 반영한 것으로써 현재까지 우리말 번역에서 가장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πολιτεύεσθε)’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는 정치 영역에서 실제로 쓰인 용어입니다. 즉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를 제외한 제국

의 속주들 가운데 ‘가장 로마적인 특성을 보인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더 컼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조, 행 16:16-40, 특히 37절).

(2) 그런데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보다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이 드러낼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됩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견고히 서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윤리적인 교훈과 격려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범을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에게서 본보기로 삼도록 안내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구조상 27절에서 강조하는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명제는 갑자기 들어온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담은 이 구절이 빌립보서의 나머지 부분을 이끌고 가는 중심 주제로 기능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명령은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빌립보서 3:8

GNT⁵

ἀλλὰ μενοῦνγε καὶ ἡγοῦμαι πάντας ζημίαν εἶναι διὰ τὸ
ὑπερέχον τῆς γνώσεως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τοῦ κυρίου μου, δι'
δὲ πάντας ἐζημιώθην, καὶ ἡγοῦμαι σκύβαλα, ἵνα
Χριστὸν κερδόσω

『개역개정』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새번역』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해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공동개정』

『새한글』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3.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으로, 그리고 『공동개정』은 ‘모든 것이 다 장해물로 생각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라고 하여 원문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손해로 번역된 ‘제미아(ζημία)’는 고대 그리스 법정의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벌금을 의미했습니다. 범죄나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재정적인 처벌을 가할 때 쓰였습니다. 경제적인 용례로는 상업거래나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계약의 불이행이나 사기(詐欺)로 파생한 손해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명예나 평판에 손실을 보았을 때도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각각 ‘가장 고상’, ‘가장 고귀’, ‘무엇보다도 존귀’하다고 번역했는데, 『새한글』은 ‘더없이 중요한 일’로 번역함으로써 바울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는 대신 다른 모든 것은 기꺼이 손해 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줍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1) ‘제미아(ζημία)’를 KJV, NIV, ESV는 일률적으로 ‘손실(loss)’로, NLT는 ‘무가치하다(worthless)’로 번역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대신, 다른 것은 모두 쓰레기로 여긴다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KJV(‘do count them but dung’)의 뉘앙스가 좀 더 강한 것은 맞지만, ESV(‘count them as rubbish’), NRS(‘regard them as rubbish’) 등 대부분의 영어 역본에서 ‘쓰레기로 여김’이란 번역처럼 유사한 의미로 번역하는 데서 확인됩니다. 단, NLT는 ‘모든 것을 쓰레기로 간주(counting it all as garbage)’함으로써 원문의 의도를 보충하는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2) 영어 역본 대부분은 지금까지 간행된 우리말 성경과 의미상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NIV는 ‘쓰레기로 여기다(I consider them garbage)’로, NAS(1995)는 ESV처럼 ‘쓰레기로 여김(I count them but rubbish)’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권에서는 LB가 ‘배설물로 여기다(achte es für Kot)’로, ZB도 ‘배

설물로 간주하다(betrachte es als Dreck)’로, BB는 ‘내 눈에는 그저 배설물일 뿐(in meinen Augen ist es nichts als Dreck)’으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에 더 현실적인 의미를 첨가하였습니다. ‘더없이 중요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손해가 된다는 점을 바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바울은 유대교라는 자기 조상의 관습과 유산을 언급하며 너무 과격한 표현을 구사함으로써 독자를 놀라게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자기 이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은연중 드러내면서도(빌 3:5), 주저하지 않고 평가절하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빌 3:2). 그래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뉘앙스를 담은 단락에서 이 구절이 제공하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2) 바울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자체를 거부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없이 중요한 일’이고,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향하여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구원에 결정적이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신앙의 결정적 척도라는 점을 밝힙니다.

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가치가 자기의 가치관과 삶을 극적으로 재편하여, 다른 어떤 것도 같은 방식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2)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가치와 그 밖의 다른 모든 가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즉 독자들은 바울의 언급을 통해 이미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4. 빌립보서 3:20

GNT ⁵	ἵμῶν γὰρ τὸ πολίτευμα ἐν οὐρανοῖς ὑπάρχει, ἐξ οὗ καὶ σωτῆρας ἀπεκδεχόμεθα κύριον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
『개역개정』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새번역』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개정』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4.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로, 그리고 『공동개정』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라고 번역하여 의미만 담았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번역하여, 원문의 어순은 물론 1세기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의미를 모두 담는데, 이것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지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감할 수 있습니다.

(2)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모두 ‘우리의 시민권’이나 ‘시민이라’고만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보다 정교하게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로 번역하여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할 수 없는 신약성서에서 단 한 번 쓰인 πολίτευμα(폴리튜마)의 세계를 명료하게 포함시켰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1) 관례적으로 ‘시민권’이라고 번역한 πολίτευμα를 KJV는 ‘교제’나 ‘대담(conversation)’으로 번역했고, RSV는 우리의 ‘국가’ 또는 ‘단체(commonwealth)’로 번역하여 πολίτευμα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NRS, NAS, NIV는 공통적으로 ‘시민권(citizenship)’이 하늘에 있다고 번역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이해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독일어 LB는 우리의 ‘생활방식’ 또는 ‘소통(Wandel)’으로 번역했는

데, 이 단어는 고어(古語)로서, ‘교통’이나 ‘교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BB는 ‘시민권(Bürgerrecht)’으로 번역하여 영어 번역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이미 지금(schon jetzt)’이라는 현재 시점을 부가함으로써 종말론적 차원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오늘에 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바울이 사용한 *πολίτευμα*에 관한 번역의 곤란함은 이해할 만합니다. *πολίτευμα*가 갖고 있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때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세기 정치 사정도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로마제국이라는 거대한 통치 영역을 지배하던 황제의 명령권(*imperium*) 아래 생활하던 속주민의 삶의 질에 관해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πολίτευμα*와 관련된 정보는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서 경험한 내용이 옥시링쿠스(Oxyrhynchus)에서 발견된 파피루스(*P.Oxy*)를 통해 고스란히 확인됩니다. 로마제국은 고대 종교(old religion)인 유대교를 적절히 대우하여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방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제국의 당국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종교 활동이나 문화 행사를 자유롭게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πολίτευμα*는 시민권에 준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나 지역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πολίτευμα*에 대한 번역은 언급한 것처럼, 그것의 복잡한 역사를 뒤집어 봐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서에서 단 한 번 쓰인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 용어의 번역은 무엇보다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경우, 헬레니즘과 유대교 그리고 로마제국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최적화된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문학적 세계는 신학적 주장과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명료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πολίτευμα*를 통해 자신이 강조하는 종말론적 구원을 잘 드러냅니다.

(3) *πολίτευμα*는 본래 ‘정치적 행동’이나 ‘시민으로서 소유한 권리’ 그리고 ‘국가나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πολίτευμα*를 사용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결되는 종말론적 지평을 함축하면서,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헬라화된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모임이 가능하도록 시 당국의 배려라는 정치적 차원이 내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빌립보서 4:13

GNT ⁵	<u>πάντα ἴσχύω εὐ τῷ ἐνδυναμοῦντί με.</u>
『개역개정』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u>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u>
『새번역』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u>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u>
『공동개정』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u>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u>
『새한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u>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u>

5.1. 차이점 관찰

(1)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이 구절은 번역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를 보여 줄 수 있어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역개정』과 『새번역』 그리고 『공동개정』이 대동소이한 번역을 제안함으로써 바울이 제시하는 강조점이 다소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능은 없다는 ‘적극적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의 영터리 신학을 옹호하는 구절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바울의 뇌리에서 그러한 사상적 공간은 절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한글』이 제안하듯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라면 바울의 의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번역이 지금까지 제시된 우리말 번역 중 가장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번역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앞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나열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여 번역할 때 이 구절에 대한 적절한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섰음을 명시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1) 영어 성경 대부분은 약간의 표현만 달랐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라는 번역을 대부분 채택합니다(KJV, NIV, NRS, NAS, ESV, BB). 단 KJV와 LB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2) 『새한글』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번역하여 여타의 성경 번역과 차별성을 띕니다. 이 번역의 특징은 지금까지 관례로 익숙한 읽기를 채택한 성경들과의 차이가 날뿐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매사에 능력을 발휘하여 누군가를 눕히거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제공하셔서, 그가 처한 어떠한 상황도 극복하고 대처하게 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결국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강조하려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종말론적 소망을 견지함으로써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승리할 천국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사명을 지녔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강하다’, ‘힘이 있다’, ‘유효하다’ 또는 ‘영향력을 가지다’를 의미하는 ‘이스퀴오(ἰσχύω)’가 이 구절에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림 없이 견뎌 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번역된 것입니다.

5.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바울은 수감 중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의 심중에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물질적으로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계 내에서 만족을 드러내는데, 언뜻 보면 스토아 철학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 사이에는 중요하고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 사역에 직접적인 참여자로 인식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적 존재를 인간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만족이란 부족하거나 풍요한 상태의 양극단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 즉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상태는 역설을 통해 구현됩니다. 4:11-13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강조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의 지원에서 자립을 선언한 바울이지만, 빌립보 공동체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바울은 ‘풍성함’을 경험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풍요하게 만

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빌립보 공동체 뒤에서 바울을 후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가장 아름답게 담당한 것입니다.

<주제어>(Keywords)

아디아포라, 천국의 시민, 배설물, 시민권, 적극적 사고 방식.

adiaphora, Citizens of Heaven, dung, citizenship, positive mindset.

(투고 일자: 2024년 9월 2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계재 확정 일자: 2024년 12월 19일)